

취학전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편익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김유경*
교수 이기영

Dept. of Consumer studies&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Yoo Kyung, Kim

Professor : Ki Young,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overheated education of preschool child has been an social issue late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housewives'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Specific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s : (1) What are the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2) What are the sub-dimensions of that?

For this study,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G.I.(Focus Group Interview) of 5 housewives and in-depth interviews of 2 housewives. The interview helped to understand housewives' realities of their preschool child education. For late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for 400 full-time housewives with preschool child living in Seoul were also collected. The result of one-way ANOVA showed that the sub-dimensions of

* 주저자 : (yk_kim1@hanmail.net)

benefits sought of 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are composed of 'conformity', 'early stimulation', and 'preparation for school'.

Key Words : 취학전 교육상품(preschool child education commodity), 기대편익(benefits sought), 동조(conformity), 조기 자극(early stimulation), 취학 준비(preparation for school)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 높은 교육열은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특히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 중 대학진학을 앞둔 중·고등학생의 과외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어 왔으며 현재도 비용이나 심각성 면에서 가장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최근 들어 사교육 열풍이 점점 더 어린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집착, 특히 명문대학 입학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점점 더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낳게 되어,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의 선행학습¹⁾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서는 영유아기, 심지어 태교 시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기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적기교육의 의미보다 발달을 앞당기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준비교육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기교육의 열풍은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부모들의 경제

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영유아 대상의 교육사업, 특히 외국어교육 관련 사업은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5조7천억 원에 달하며, 최근 조기영어교육 관련 사교육비 규모만도 약 2조원이라고 한다(장영희, 2002). 이와 같이 유아 대상 사교육시장이 커지게 된 이면에는 유아교육이나 조기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담론들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지는데,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주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교육상품의 선택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교육 상품 자체의 신뢰제적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나 특히 취학 전인 유아의 경우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교육상품의 구매는 이후 시기보다 좀더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조기·특기교육의 열기나 유아 사교육시장의 팽창에 대한 논의는 대중매체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나,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체로 영어나 예체능 조기교육을 중심으로 그 실태나 효과에 관한 연구 또는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등에

1)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85%가 과외를 받으며, 수학 과외를 받는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보다 한달 내지 1년 이상 앞당겨 배우는 등 선행(先行)학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고생 과외의 70% 이상이 선행학습이었다(동아일보, 2002년 4월 23일자).

한정된 경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상품을 선택하는 주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정 속에 작용하는 동기적 요소, 즉 상품 구매시의 기대편익을 살펴봄으로써 기저에 깔린 개인의 내적·심리적 요인 및 주위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이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선택적인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개인이 가진 조기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지출 자체의 문제보다는 주부의 소비의 동기를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학전 자녀의 조기·특기교육이 과열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기교육의 문제를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주부의 기대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만큼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제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상품 소비의 동기적 요소인 기대편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는 조기교육 관련 후속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대편익의 개념

편익(benefits)이란 특정 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need)나 욕구(want)로서,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Peter & Olson, 1987). 편익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점으로,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제품이 가지는 속성과는 차이를 보인다(Gutman, 1982). 즉 편익은 사람이 누리는 것인 반면, 속성은 제품이 가지는 것이란 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Haley, 1968).

편익은 상품평가 기준의 한 차원으로 소비자가 상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효용(이은영, 1997)이 되는데, 제품 또는 소비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제품이 소비자가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익을 가지고 있고 상품이 제공하는 효용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효용과 맞아떨어질 때 소비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개인적 소비 가치와 소비도식들(consumption schemata)을 통해서 제품편익을 지각하고 평가한다(Day, 1990; 안소현 외, 2000에서 재인용).

기대편익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시장세분화 연구의 일환으로 편익세분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현화, 1998; 손준상, 1984; 신병철, 1995; 윤두진, 1998; Calantone & Alan, 1978; Minhas & Jacobs, 1996; Haley, 1984), 최근 들어 의류학 분야에서도 의복의 기대편익(추구혜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고애란·남미우·조윤정, 2002; 김미영·이은영, 1991; 김지현·홍금희, 2000; 류은정·임숙자, 1998; 박혜원, 1997; 안소현·서용한·서문식, 2000; 이승희·임숙자, 1998; 이정화, 1997; 임영자·류은정, 2001; 최일경·고애란, 1995; 홍희숙, 1996, 2001; 홍희숙·고애란, 1996; 황진숙, 1998, 2003; Shim & Bickle, 1994).

2.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

본 논문에서는 대상 제품을 취학전 교육상품이라는 특정상품에 한정하는 만큼 이러한 제품 특유의 편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부들이 취학전 교육 상품에 대해 지각하는 기대편익에는, 제품의 소비를 통한 심리사회적 편익-자녀교육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준거집단에의 소속감과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기능적 편익-어린 시기에 다양한 지적 자극을 줌으로써 이후 시기에 얻기 어려운 교육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사회성과 학업 측면에서 취학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취학 전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을 동조와 조기 자극, 취학 준비의 세 차원을 중심으로 그 개념과 관련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조

함인희 등(2001)은 교육과 관련한 중산층의 소비 패턴은 지위상승 욕구, 하층과 스스로를 구별지으려는 욕구, 자기과시욕, 중산층 내에서의 경쟁의식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특정한 교육 상품의 보유 또는 사용이, 혹은 교육 상품의 양이나 지출액이 자신의 준거집단과의 일치감 및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나 주변의 사교육 환경 등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주변 이웃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해 전경수(1992)는 동화소비의 메카니즘에 의한 획일성을 언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하였다.

이러한 성향을 동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동조(conformity)란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 그리고 행위를 같이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현민, 1984).

Kiesler와 Kiesler(1970)는 저서인 ‘동조(conformity)’에서 “실제 또는 상상된 집단압력의 결과에 의한 행동이나 신념의 집단을 향한 변화”를 동조라 하였다. 그리고 Freedman (1981)은 동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김나연, 2000에서 재인용). 한편 Asch(1952)는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거나 지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집단압력이 가해지면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집단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 하더라도 집단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조행동의 근거라고 하였다.

또한 권재욱(1993)은 “동조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행동이나 태도규범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수행할 때 그 행위를 동조라고 정의하였다. 즉 동조 현상은 집단에서의 개인의 행동특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압력에 따라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의 동조행동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 받는 수단으로서 동조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조적 성향으로 인해, 주부들이 느끼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감, 즉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중에 학교 가서 적응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등의 불안감은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주부들은 교육상품의 구매와 보유를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조기 자극

인간의 발달에 대해 초기경험(특히 5세 이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Freud를 신봉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정옥분, 2002). 유아기 내지 아동기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아동발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데 기인하였다.

일찍이 플라톤은 유아기에 흔들 그네를 많이 탄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다고 믿었으며(Santrock, 1994), 생후 1년까지 유아가 따뜻하고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이후의 발달이 최적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다(Bowlby, 1978; Sroufe, 1996). 19세기 뉴잉글랜드의 목사들은 주일예배 때 부모들에게 지금 유아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그들 자녀의 미래 성격을 결정한다고 설교하였다(정옥분, 2002).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유아기 교육에 관심이 높아져 왔고, 유아 교육 전문가들과 관련 산업을 통해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기 자극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에는 유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유안진, 2000),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제반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영희(2002)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두뇌

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로 영아의 뇌 발달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뇌 발달을 위한 생애 초기 3년간의 경험의 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아산업체의 상업적 요소들과 연결됨으로써 유아 초기·특기교육의 과열현상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밝힌 이론들이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어 유아에게 조기에 남보다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이 곧 이후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며, 개인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낳았다는 것이다.

조기 자극의 영향에 대한 견해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과잉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의진(2002)은 어린 시절 아동 발달보다 훨씬 앞선 인지 자극이 조기에 주어졌을 때 과연 아이의 뇌 발달이 촉진되어 후천적인 영재로 발달할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잠재 지능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릴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그 시기에 적절히 발달해야 할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의 영역이 제대로 발달할 기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디오 중후군'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최근의 뇌 발달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의 부위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하는데, 과잉 조기 교육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한다.

3) 취학 준비

취학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남 지역 및 광주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오효선(2001)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유아기 특기·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지적 발달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교육을 시키는 동기로 '초등학교 준비'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준비도는 인지적인 면과 사회정서적인 준비를 동시에 의미하며, "학교 수업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학습, 기술, 태도, 동기 및 행동 특성의 습득"이라고 정의되어진다(조성연, 2002). 즉 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으며, 혼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등 사회·정서적인 준비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하여 영어, 피아노, 태권도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의 두 측면이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해 기대되는 편익 중 일부를 구성한다.

· 장미혜(2001)는 부모의 자녀교육의 목표를 인격적인 완성도와 학업적 성취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취학전 자녀의 경우 인격적인 완성도는 사회성의 개발과, 학업적 성취는 기본 학습능력의 배양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주부들이 취학전 교육상품으로부터 얻고자 기대하는 편익은 무엇인가?

둘째,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은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가?

2. 자료 수집방법

1) F.G.I. 및 개별면접 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면접 조사는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부들이 취학전 교육상품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들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F.G.I.(Focus Group Interview)는 2003년 6월 26일, 만 5-6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여러 연령층의 자녀가 포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의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자녀 연령은 취학을 1-2년 앞둔 만 5-6세로 한정하였다.

F.G.I.의 내용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교육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선택 과정과 선택시 중요시한 점, 교육상품으로부터 기대하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고, 심층면접에서는 여기에 더불어 자녀교육과 관련한 애로점, 자녀 교육 부담,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 각 교육상품에 대한 평가, 자녀에 대한 기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좀더 심층적인 내용을 얻고자 F.G.I. 참석자 중 자녀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정보를 가진 주부 1명과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비참석자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03년 7월 1일과 7월 5일에 이루어졌다. 면접은 면접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다. 면접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에 녹음한 후 녹음된 내용을 채록하거나, 면접 중 연구자가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2) 질문지 조사

F.G.I. 및 심층면접을 통해 구성된 24개의 문항 중 관련전공자들의 자문 및 검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구성된 18문항의 척도에 대해 척도의 타당도와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문항을 가지고 2003년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22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5-6세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 문항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묶여 질 수 있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대편익의 구성 과정

F.G.I. 및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의 연령상 이들은 모두 30대이며,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강남 및 목동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찬호 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만 5-6세의 해당 자녀가 첫째로,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주변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워크시트²⁾를 통해 이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대체로 사회성과 기본학습기술, 창의성, 학습습관, 독립심과 주도성을 중

요시하는 경향이나 각 개인별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F.G.I. 및 심층면접의 내용을 종합하여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해 이들 전업주부들이 가지는 기대편익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점은, 어렸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인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교육시장에서 그들이 얻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다.

장영희(2002)는 1990년대 이후 두뇌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로 영아의 뇌 발달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뇌 발달을 위한 생애 초기 3년 간의 경험의 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아산업체의 상업적 요소들과 연결됨으로써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과열현상을 낳게 된 것으로 본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밝힌 이론들이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어 유아에게 조기에 남보다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이 곧 이후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며, 개인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족구조의 변화나 사회 경제 수준의 향상, 가구당 소득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기숙 외(2002)에서도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불안감의 원인 중 하나로 유아기 발달과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식 부족을 들었다.

여러 파트의 영역을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지능이론(?)이라고 해서, 어느 대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8개 영역인가? 사회성, 체육, 음악,... 물론 표현이 이러지는 않죠. 좀더 세련된

2) Stipek과 동료들(1992)이 개발한 부모신념 설문지를 변안, 수정하여 심숙영(2000)이 제시한 유아교육의 교육목표 9가지-사회성, 독립심과 주도성, 기본학습 기술, 협동, 지식, 자아감, 학습습관, 창의성, 운동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1> 피면접자의 특성

피면접자	연령	학력	남편 직업	주거 형태	자녀수/연령	교육목표	교육기관
한솔 모	31세	대졸	회사원	목동 아파트 (35평, 전세)	2녀 (5세, 2세)	독립심과 주도성>기본학습 >창의성	영어학원 유치부
소연 모*	36세	대졸	의사	목동 주상복합 (40평, 전세)	2녀 (6세, 2세)	사회성>창의성>기본학습 기술	유치원
찬호 모	36세	대졸	회사원	목동 아파트 (35평, 자가)	1남1녀 (8세, 5세)	사회성>독립심과 주도성>창의성	유치원
연주 모	31세	대졸	의사	잠원동 아파트 (32평, 전세)	1녀(5세)	사회성>자아감>창의성	탐색 중
인희 모	35세	대학원졸	회사원	목동 아파트 (27평, 전세)	1녀(5세)	기본학습 기술>사회성>독립심과 주도성	미술학원 유치부
현우 모*	32세	대졸	회사원	압구정동 아파트 (33평, 전세)	1남(5세)	학습습관>기본학습 기술>사회성	영어학원 유치부

*표는 심층면접 대상임

표현인데... 하여간 뇌의 활동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전혀 미숙하다는 거죠. 언어가 뛰어나도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데, 그게 체험할수록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이는 ○○○ 스쿨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기억이나 인지 이런 부분은 보통인데, 창의력 같은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게 나와요. (소연 모)

영어유치원을 3년째 보냈더니 영어 하나는 잘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옳은 건가? 뭐가 중요한 게 빠진 채 자라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내가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영어유치원에서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영재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어요.

영재 센터 다니는 게 얼마 있으면 주2회에서 주1회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른 부족한 부분을 다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재센터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애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간지각력이 많이 부족하다던데, 뭘 시켜야 할지... (한솔 모)

또한 조기교육을 시켜온 어머니들의 경우

조기교육을 통해서 이후 시기에는 얻을 수 없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 모의 경우 소연이가 2년 이상 한글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있어 적기교육이 맞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렸을 때 학습방식이 이후의 학습방식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어렸을 때 배우면 쉽게 배우잖아요. 물론 진도 면에서는 어렸을 때 접했던 아이랑 나중에 늦게 시작하는 아이랑 늦게 시작한 아이가 더 빨리 배우는 것도 있어요. 한글 같은 것도 늦게 하면 두 달이면 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일찍 받아들였던 애랑 비교해보면 뭐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도형 같은 건... 소연이는 △△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도형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수업이야 얼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거나 잊어놓거나 그거를 애는 그냥 아는 거예요. 영어를 원어민은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겨야 그건 말이 안돼 하는 식으로, 도형도 그건 당연히 이거지 왜 저거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커서는 더 깊어 가는 내용을 배울지는 몰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 때 접했던 애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연 모)

세 살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냈어요. 3년째 보냈더니 영어는 이제 읽고 쓰고 다 잘 해요. 특히 어려서부터 해서 그런지 발음은 정말 좋아요. (한솔 모)

한편, 취학 이후의 정서적, 학습적 적응 문제가 커다란 관심거리였으며, 취학 전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바 중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취학 준비의 의미로는, 크게 사회성 발달과 학업 기초 능력 배양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딸인데 영어유치원을 보냈어요. 첫째 때 경험상으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영어유치원은 어렸거나 영어확원이나 환경이 열악한 편이잖아요. 공간도 좁고 다른 유치원에서처럼 놀잇감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수로 운영되는 곳이라 아이 요구에 바로바로 반응해 주다가 학교 들어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애가 적응이 안 되어서 한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영어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크게 후회는 없었는데, 둘째는 남자아이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남자애라 여자애들 만큼 여러 모로 빠르지도 않고, 또 남자는 공부만 잘 하기보다는 리더십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 애들과 함께 지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찬호 모)

아이가 예민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걱정이예요. 문화센터 가서도 아직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는 것도 못 해요. 딴 애들은 다들 혼자 들어가는데... 아무 데나 보내지는 못 하겠고, 마음에 드는 데도 없고 마음도 안 놓고 해서 아직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문화센터 강좌만 몇 개 다니고 있어요. 엄마랑만 있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애가 점점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적당한 데를 얼른 알아봐서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연주 모)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년 한해는 일반 유치원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유치원하고는 달리 영어유치원은 학습 위주이다 보니 애야 빠 말이 아이가 추억이 없이 자라는 것 같아 안 됐대요.

○○유치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몬테소리 교육 기관이고 기본 인성교육에 충실하다고 하거든요. 학습적인 면에서야 아무래도 효과가 적겠지만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솔 모)

소연이가 첫 애다 보니 너무 막연한 거예요. 둘째는 이 시기엔 뭘 해줘야 하고 뭘 할 어느 정도 심화시켜 줘야 하고 어떻게 자극을 줘야겠다는게 생기는데... 소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뭘 해 줘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이 없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연산을 해서 갔나? 국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갔나? 안 하면 안 되니까... 경험 있는 엄마들한테 물어서 그 정도는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연 모)

우남희 등(2001)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과도한 조기교육에의 열풍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집단 동조성, 조급성 등으로 인해 더욱 과열화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도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동조성을 드러냈다. 이들의 자녀는 연령이 어려 아이의 능력이나 수준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이 크고, 이러한 불안감이 주변 사람들이 시키는 만큼 비슷하게 해야 마음이 놓이게끔 만드는 경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서로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고 자녀교육에 더욱 매달리도록 부

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F.G.I. 때에도 나타나 F.G.I.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서로 교육 정보를 주고받기에 바빴고, “영어 유치원 보내니까 정말 잘 해요? 어느 정도 하나요?” “필로 했는데 한글 그렇게 일찍 떴어요?” “아까 말했던 수학교재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등등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잠재적 불안감이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편 사업 관계로 일본에서 몇 년 살다 왔었어요. 첫째가 여섯 살 때 들어왔는데, 와서 처음에 주변 엄마들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린 애들한테 이것, 저것 너무나 많이 시키는 데다 애들 책이니 교구니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한마디로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반년 지나니까 나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찬호 모)

4살 무렵엔 아이한테 이것, 저것 너무 많이 시키고 아이 책이니 뭐니 마구 사다들이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 끝까지 해줘야 될 텐데 그럴 자신도 없고, 이 시기엔 그냥 놀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의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시키는 거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그냥 놔뒀다간 큰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주 모)

○○○스쿨이나 창의미술 하는 데 가면 수업 시간동안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데, 엄마들이 같이 앉아 있다보면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 교육 얘기 뿐이잖아요. 요즘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생겼다 이런 정보는 다 거기서 얻어요. 남들 시킨다 그러고 시켜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좋더라 얘기 들으면 우리 애만 뒤쳐지는 것 같아서 결국 시작하게 돼요. 거기다 이름 올려 놓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거나 하면 얼마나 좋길래 그럴까 싶은 게 정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TV 보면 한글○○ 선전에 24개월 됐다는 애가 나와서 한글을 줄줄 읽잖아요? 우리 애는 그거 1년 넘게 시켰는데도 아직 거의 못 읽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애가 바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든단िया요. (현우 모)

아이 교육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거든요. 주로 ○○○스쿨 같은 데, 특히 토요일날 가면 똑같은 엄마들을 계속 만나요. 주로 그런 데서 정보를 얻어요. 미술학원 유명한 데도 다 그런 데서 흥대 앞에 뭐가 있다, 어디서 뭐를 한다더라 그러면 그게 유행이 되어서 가기 시작하고, 팀 짜서 새로운 데 보내기 시작하고...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다 “우리 애는 아무 것도 안 시켜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상 얘기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소연 모)

한편 일단 이렇게 교육상품이 자녀교육과 관련한 불안감을 다소간이라도 해소해주는 수단 이 되면, 교육상품 자체에 의구심이 들거나 아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쉽게 그만두거나 줄이지 못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편이나 시대 식구들 모두 학벌이 별로예요. 그래서 애한테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애가 힘들어한다 느끼면서도 줄일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만 보여서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더 시키기 일쑤고... 이런 식이에요. △△수학을 하다가 다른 엄마가 수학□□가 좋다고 해서 새로 시작했는데, 그럼 △△수학은 그만 뒤야 할 거 아녜요? 그런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싶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수학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한자도 수학 선생님이 하도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다들 하는데 애만 안 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만두지 못하겠어서 또 계속하고... (현우 모).

다들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야 검증이 될 테니까... 영재라고 생각하니까 영재교육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아이가 정말 영재인 엔데 교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킨 게 아닌가? 그냥 나뒀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손을 대 가지고 나빠진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가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한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한번 끊어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빈둥빈둥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애가 빈둥거리고 있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간에 주로 밖에 나가서 놀이터도 가고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 게 애가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쨌거나 애는 에너지가 넘쳐나 가지고 그게 아니라도 뭐든 해야 하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시 시작했죠. (소연 모)

취학전 자녀의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숨은 기대편익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의 측면이다. 이들의 애기 속에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자원이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비슷한 내용의 것을 다루더라도 교육방식이나 시설, 프로그램의 차이에 따라 급이 있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이는 교육방식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이나 집단별 양식화(stylization)가 가능한 하나의 소비영역으로서 의미를 더하게 되어, 가격대별로 층화되어 있는 다양한 선택 보기들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 외에 개인 및 집단의 소비취향 또한 반영하게 된다는 함인희 외(2001 :104)의 주장과 일치한다.

올해부터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비용이 남편 월급에 비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 옷 안 사 입고 먹는 거 덜 먹더라도 시킨다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애네 유치원만 해도 아버지가 거의 전문직이거나 사업하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미술 하는 날이 유치원 체육시간이 있는 날이라 원복을 입고 갔었는데, 다른 엄마들이 “○○○○ 다녀요?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러는데,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 미술학원도 웬만큼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는 엄마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현우 모)

교육을 하면서 다녀보면, 이 정도 교육 시키려면 굉장히 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느껴요. 거의 사업을 하거나 의사, 변호사거나 엄마, 아빠가 다 벌거나 그래야지 하지... 이 동네 안에서도 생활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셀러리

맨 해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못 시키죠. 그러면 문화센터 같은 데서 많이 채워지죠. 그런 엄마들도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싼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가 가지고 채워주려고 하거든요. (소연 모)

이제까지 애들한테 시켰던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건 △△△예요. 주변에서 시키는 엄마들이 이거 하면 따로 셈하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들 해서 비싸긴 해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비싼 만큼 값을 하더라고요. 더하기니 빼기니 계산하는 거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개념이 생기도록 하는... ‘고급스러운 교육’이랄까? 하여간 계산하고 문제 풀고 그런 거하고는 한 차원 다른 교육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둘째도 시키고 있어요. (찬호 모)

△△△△ 놀이수학을 다니는데, 수학 학습지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주1회만 하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교구를 보면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종이에다 대고 더하라 빼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수학개념을 다 해주는데 그거를 너무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죠. 패턴을 하나 해도 코르크에다 작은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해요. 그러니 1시간만 하는 게 너무 아쉽죠. (소연 모)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어린 시기에는 보다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다루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뭔가 한 가지라도 중요한 것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조기 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으로, 그래서 외국어(영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키기로 선택한 경우 다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반대로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어주거나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외국어 교

육을 충분히 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이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다른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 또는 광고의 내용이나 교육기관에서 주는 왜곡된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자녀가 뒤처지지 않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지금 현재 아이의 능력이나 아이에게 시키고 있는 교육의 정도에 상관 없이 면접 대상의 대부분이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녀들의 연령이 6·7세인만큼 더 어렸을 때와는 달리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주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등의 노력 외에 학교에 보내기 위한 준비로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고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직접적인 학습에 대해서는 면접 대상자들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글자나 숫자 등을 배우는 것은 놀이나 기타 특별한 교구를 활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학습방식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취학 준비의 한 차원으로 사회성의 계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관인 유치원 등에 보내는 것이었으며, 놀이터에서와 같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것은 별로 고려되지 않아, 사회성도 교육상품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듯했다. 소연 모의 경우 놀이터에서 노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로 여겼다.

면접 대상자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교육비의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시킬 수 있거나 값비싼 교육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는 과시적 측면에서의 만족도 느끼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교육상품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는 데 대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소극적인 편익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소연 모의 경우 어린 동생 때문에, 한솔 모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누나에게 신경을 써줘야 해서, 또 아이가 하나인 연주 모나 인희 모, 현우 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위의 F.G.I. 및 심층면접의 내용에서 취학전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한 전업주부들의 기대편익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내용을 정리하여 2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및 각주 3) 참조).

구성된 기대편익 문항들에 대해 관련 전공자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위의 문항들 중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6문항을 제외하고 3) 18개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2.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의 차원

재구성된 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은 <표 2>과 같이 세 요인으로 묶였다.

- 3) “비슷한 책이나 교구, 비슷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유치원(학원)이라면 브랜드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다,” “아이를 어디에 보내고 무엇,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그 집의 형편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래 아이가 있는 엄마가 왔을 때 좋은 교구나 책이 별로 없으면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다”의 4문항은 보편적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 교육에 있어서 남들이 하는대로 쫓아가지만 말고 나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다”(역문항)은 동조 관련 다른 문항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영재는 타고나는 것보다 후천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직접적인 기대편익을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삭제되었다.

<표 2>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편익의 차원

항 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동조	조기자극	취학준비
교육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가 교사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442	.138	.351
한글이든 숫자든, 영어든 우리 아이가 다른집 아이보다 늦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671	.180	.134
주변 엄마들이 하는만큼은 시켜야 마음이 편하다	.799	.153	.109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남들이 무얼 하는지 늘 관심갖고 알아보아 시켜야 한다	.655	.282	.130
아이 교육도 주변사람들과 비슷하게 시켜야 소외되지 않는다	.728	.163	.141
또래 엄마들과 얘기하다보면 내 아이만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서 자꾸 더 시키게 된다	.677	-9.2E-02	.138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혹은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더 시키지는 못하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636	-1.5E-02	8.548E-02
비싼 유치원에 보내고 비싼 교구를 구입하는 등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674	7.967E-02	-.121
아이의 어릴 때부터 되도록 많은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	1.966E-02	.710	8.368E-02
아이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을지 모르므로 다양한 것을 접하게 해줘야 한다	8.686E-02	.625	.208
영어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발음이 좋다	.143	.617	.127
어려서 배우면 커서보다 더 쉽게 배우는 것이 많다	.183	.623	.237
어려서 뛰어난 아이가 커서도 뛰어나므로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	.437	.573	.274
학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내 아이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길러주어야 한다	-9.5E-02	.463	-.179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려면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보내야 한다	.153	.180	.742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647E-02	6.374E-02	.723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418	.210	.442
학교 들어가면 학교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 전에 창의력과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해야 한다	.319	.268	.461
고 유 치	4.124	2.695	1.831
요인별 설명력	22.914	14.974	10.171
총 설명력	48.059		

이들 요인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막연하게 가지는 불안감을 없애고자 하는 기대에서 교육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인생 초기에 있어서의 자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교육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요인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 학업 및 교우관계의 적응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교육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하위 차원을 각각의 내용에 따라 '동조', '조기 자극', '취학 준비'로 명명하였다.

V. 제 언

여기서는 본 연구의 내용에 근거하여 취학전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및 취학전 자녀 교육이나 기대편익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에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유아의 지능이 올라가거나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⁴⁾, 유아기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오해로 인해 부모들이 유아기 발달에 대한 이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아교육 시장의 논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상

품의 편익에 대해 맹신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부모들 간의 교류와 비교를 통해 더욱 부추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기 발달과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반응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아이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그에 따른 발달상의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부모 교육프로그램에는 과잉학습이나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자녀 연령을 취학을 앞둔 만 5, 6세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조기·특기 교육의 시작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인 만큼 이보다 어린 연령대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연령별 집단 간의 기대편익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상품에서 기대하는 편익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주부의 기대편익에 대한 연구 및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천재 아이를 원한다면 따뜻한 부모가 되라'(문학과 의식 간, 2001)의 저자인 서울대 의대 신경과학연구소장 서유현 교수에 의하면 "종합적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주입식 교육이나 강제교육은 오히려 두뇌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 뇌의 회로가 미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극이 가해지면 회로가 망가지고 뇌세포가 죽게 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강제 교육은 아동에게 혐오감과 스트레스를 주어 경련·발작·자폐증 등을 일으키는 '과잉학습증후군'을 낳을 수 있다(뉴스위크 한국판 2002. 1. 23 :64-65).

본 연구에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자녀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교육상품에 대한 기대 편익을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 연구의 척도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한계 점을 가지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대상의 조기교육 및 영재 교육이 과열화되는 상황에서,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주부의 기대편익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열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이용한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설문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작성된 기대 편익 문항을 이용한 실증 연구를 후속 연구로 시도하고자 한다. 기대편익 척도를 토대로 주부를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집단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각 유형별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부가 자녀의 교육상품에 대해 가지는 기대편익이라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취학전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실제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연구 결과 자체의 의미보다 이를 활용한 실증 연구의 시도 및 그 결과를 통해 연구의 의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고애란·남미우·조윤정 (2002). 주부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의복추구혜택과 구매 관련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0(5), 119-132.
- 2) 권재욱 (1993). 소비자행동에서의 동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나연 (2000). 청소년 소비자의 동조적 상표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미영·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1-334.
- 5) 김지현·홍금희 (2000). 남성집단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성향과 정보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43-54.
- 6) 김현민 (1984). 소비자 행동에 대한 준거집단 영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현화 (1998). 편익 세분화에 따른 학습지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류은정·임숙자 (1998).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749-759.
- 9) 박혜원 (1997). 의류 상품의 편익이 상표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손준상 (1984). 소비자편익에 의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신병철 (1995). 유아복 시장에서의 편익 세분화와 광고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특히 서울시 거주 가정 주부의 유아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신의진 (2002). 과잉조기학습이 유아의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학교운영위원회 통권 27호, 110-115.
- 13) 안소현·서용한·서문식 (2000). 의류 구매자의 가치관-추구혜택-제품 속성간의 계층적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 의류학회지 24(5), 652-662.
- 14) 우남희 · 현은자 · 이종희 (1993). 사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특기 과외 교육 실태. 199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5) 윤두진 (1998). 은행 마케팅에 있어서의 편익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홍용희 (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학연구 22(3), 153-171.
 - 17) 이승희 · 임숙자 (1998).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추구혜택 및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42-951.
 - 18) 장미혜 (2001). 소비 양식에 미치는 문화 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장영희 (2002). 조기특기교육-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 교육개발 통권 133호, 34-39.
 - 20)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21) 조성연 (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 22) 최일경 · 고애란 (1995). 혜택세분화와 인식도에 의한 진의류브랜드 이미지 연구(I) -진의류에 대한 추구혜택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세분화. 한국의류학회지 19(4), 612-662.
 - 23) 함인희 · 이동원 · 박선웅 (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 24) 홍희숙 (1996). 상황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사전적 모형으로 연계시킨 혜택세분화연구 -추구혜택, 지각된 위험, 상점 속성의 중요도 및 상점 선택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6), 1151-1165.
 - 25) _____ (2001).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73-84.
 - 26) _____ · 고애란 (1996). 상황과 소비자 특성의 추구혜택과 선호브랜드 유형에 대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738-752.
 - 27)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28) 황혜신 (2001).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200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29) Asch, S. E.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 New York : Prentice-Hall.
 - 30) Bowlby, J. (1978). *Attachment and Loss*. Harmondsworth, Eng. : Penguin Books.
 - 31) Calantone, R. J. & G. S. Alan (1978). The stability of benefit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2, 127-133.
 - 32) Gutman, Jonathan (1982). A means-end chain model based on consumer categorization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46, Spring, 60-72.
 - 33) Haley, R. I. (1968). Benefit segmentation : A decision-oriented research tool. *Journal of Marketing* 32(3), 30-35.
 - 34) Kiesler, C. A. & S. B. Kiesler (1970). *Conformity*. Addison-Wesley.
 - 35) Minhas, R. S. & Jacob, E. M. (1996). Benefit segmentation by factor analysis : an improved method of targeting customers for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14(3), 3-13.
 - 36) Mulvey, M. S., Olson, J. C., Celsi, R. L. &

- B. A. Walker (1994).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eans-end knowledge and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1, 51-57.
- 37) Nickols, S. Y., Metzen, E. J. & Fox, K. D. (1983). Buy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8, 407-448.
- 38) Peter, J. P. & J. C. Olson (1987). *Consumer Behavior :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Irwin.
- 39) Santrock, J. W. (1994). *Child Development*. Madison; Wis : Brown & Benchmark Publishers.
- 40) Shim, S. & Bickle, M. C. (1994).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logics, shopping orientation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2(2), 1-12.
- 41)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 The Origination of Emotional Life in Early Years*.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University Press.